

닛신보 - 나노 가공 기술로 연간 500만m 규모로

닛신보가 2004년 3월에 상품화한 천의 나노 기술 가공 시리즈 “나노사이언스(Nano-science)” 전체의 가공 천 규모는 2004년도에 450만~500만m 이상이 될 것 같다. 은(銀)의 제균 가공 “에이취 프레쉬(Ag fresh)”만으로도, 이번 1/4 사분기에도 100만m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나노 기술에 업계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각종 가공 중에서도 “에이취 프레쉬”를 비롯하여 형태 안정 가공의 “SSP 옹스트롬”, 방오 가공의 “DC III”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SSP 옹스트롬” 소재는 제품 사업으로 “논케어(non-care)” “닛신보 셔츠”로 사용되고 있어, 순면 소재로 W&W(wash & wear性) 3.5급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에이취 프레쉬”는 은(銀)을 4nm의 입자까지 최소화하여 섬유 구조의 내부에까지 침투시켜 지속적인 항균 방취 효과를 나타낸다. 종전에는 이러한 기능은 접착 수지를 바인더로 사용하였었는데, 나노 기술은 기능성 입자를 섬유 구조 속으로 직접 침투시켜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재의 태를 원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탁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므로 세탁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 가공을 흡수 속건성 가공과 곁들여, 일본의 다습한 기후에, 특히 장마철에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빨래를 집안에 널어도 잘 마르는 “방안 건조 대응 소재”로서 주문이 많다.

또한 흡수성이 좋으면서도 입었을 때의 기분이 좋으며, 물 때나 기름 때도 모두 잘 떨어지게 하는 가공 “DC III”는 기름과 잘 어울리는 폴리에스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피지 성분 중 땀이 천에 절게 되는 원

인의 “올레산(oleic acid)”도 세탁으로 상당히 잘 빠진다.

영업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를 동행함으로써 고객 앞에서 실험으로 가공한 기능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판매를 확산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